

신라 초기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

종교문화의 측면에서 본 사회 통합과 지배체제의 정비

The belief on the sky god and mountain spirits in early Silla society - Social unific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uling system in relation to religious culture -

저자 (Authors)	나희라 Na, Hee-La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82 , 2016.6, 131-157(27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82 , 2016.6, 131-157(2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04910
APA Style	나희라 (2016). 신라 초기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 한국고대사연구, 82, 131-15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4 16:2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초기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

—종교문화의 측면에서 본 사회 통합과 지배체제의 정비—

나희라**

- I. 머리말
- II. 통합과 지배, 그 권위의 기원과 근거
- III. 권력의 집중, 신관념과 제사의 편제
- IV. 맺음말

국문 초록

대부분의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신라인들도 하늘과 산에 대해 특별한 종교적 감정을 가졌었다. 신라인들은 지상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하늘이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보편적이며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또 지상으로부터 우뚝 솟아 하늘에 닿는 산은 일정 지역을 하늘과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라를 구성한 여러 집단들은 자신들의 시조가 하늘에서 산을 통해 내려왔다고 설명하였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대표논저 :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 2012 『고려시대 묘지명 제각과 '알리고 싶은 열망'』 『대동문화연구』 79 ; 2015 『고구려 패수에서의 의례와 신화』 『사학연구』 118.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하늘에 비해 산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이다. 신라인들에게도 천신은 지고하며 보편적이며 추상적으로 인식되었다. 초기 신라사회에서 산신은 일정 지역의 수호자로서 지역집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왕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배해야 했던 왕실은 자신들과 천신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왕경 주변의 주요 산(또는 산신)들은 3개의 '山'과 5개의 '巖'으로 묶였다. 그럼으로써 지역집단의 독자성을 상징하던 산신은 왕실을 수호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신라인들에게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는 중요한 종교문화의 요소이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초기 신라사회에서 사회 통합과 지배 체제의 정비를 위한 정치적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천신, 산신, 건국신화, 중앙집권화, 三山五巖

I. 머리말

신라인들은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신들을 끌어들었다. 하늘, 산, 강, 바다 등 자연과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세를 떠나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을 신격화하여 이러한 신들이 자신을 있게 한 근원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을 제사하고 기념하면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작동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상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하늘과 지상에 우뚝 솟아 하늘과 닿아있으며 지상의 움직이는 것들을 품고 있는 산은 신라인들에게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주었던 것 같다. 신라인들이 남긴 기록 중 종교문화와 관련한 것에서 하늘과 산에 대한 신앙과 그 제사에 관한 것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역사 기록은 주로 지배층의 관심사를 남긴 것이라는 점에서, 하늘과 산에 대한 신앙과 그 제사에 대한 기록들은

국가사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지배층의 관심사를 표현한 정치사회적 측면의 기록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라의 하늘과 산에 대한 신앙과 숭배 행위를 살펴보는 것은 신라인의 종교 관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읽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라인의 하늘과 산에 대한 관념과 행위가 어떤 의미였으며 그것이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라 초기, 국가가 형성되고 성장해나가면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종교문화로서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중심에 두고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종교문화의 장기지속성을 고려하여, 신라 초기의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신라 전 시기에 걸쳐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신라인의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위에 신라 초기사회에서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통합과 지배, 그 권위의 기원과 근거

경주 분지 일대에 자리 잡았던 여러 집단들이 모여 초기국가로 발전한 것이 진한 12국 중의 하나였던 사로국이였다. 사로국은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해가면서 고대국가 신라로 발전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은 각 집단의 환경에 따라 그 내용과 모습이 각기 달랐지만, 권력의 집중과 확대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로국의 성립과 신라로의 발전도 역시 그러하였다. 권력을 행사함에는 권력이 침투해야하는 대상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기술이나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이나 장치는 권력 행사를 정당화시켜주는 권위의 인정을 끌어내주는 것이다. 여기에 신관념을 비롯한 믿음체계와 의례 등 종교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이데올

로기적 장치로 역할을 하였다.

고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작용한 종교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건국신화이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신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를 시조왕의 탄생과 결혼, 그리고 왕위 즉위의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나라의 근본이 왕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즉 왕의 존재와 왕이 행사하는 권력이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근본임을 말하는 것이다.

신라의 건국신화에 의하면 건국의 시조 혁거세는 여러 집단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이들은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군주가 없어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제멋대로 하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군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움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

구심점이 없이 흩어져 있는 여러 집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건국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왕이 될 자의 자격은 ‘德’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그 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에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楊山 밑에 있는 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살펴보니 자주색 알 한 개가 있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내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 보니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이를 東泉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는 빛이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오면서 춤을 추고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그리하여 이름을 혁거세왕이라 하였
다.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天子가 이 땅에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女君을 찾아서 배필을 정해야 하겠다.”고 하였다.『三國遺事』卷 第1,
紀異 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

즉 그 ‘덕’은 하늘에서 내려와 신이한 탄생을 한 까닭에 ‘천자’로 인정을 받
은 것에 있었다.¹⁾ 바로 천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각기 흩어져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인들이 여러 집단을 통합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의 근
거로 ‘하늘’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늘은 위대함, 거대함,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자신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엄한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위를 가진다.²⁾ 신라
건국신화에서 하늘은 자손을 지상에 내려 보내어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주체
적 존재이다. 이러한 천신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조선 건국신화의 천

-
- 1) ‘덕’을 갖춘 자를 왕으로 추대한다는 이야기는 중국 漢代 이후 天子는 賢德에 의해 하
늘의 승인을 받은 자라는 ‘聖人天子論’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에 의하면 ‘천자’는 천의
권위를 매개로 德이 뛰어난 인간에게 신성성을 부회하기 위한 개념일 뿐 문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은 아니다. 신라에서 혁거세의 탄생의 신이함을 말하는데 중국의 이야기
를 끌어오기는 했으나, 신라의 혁거세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 하늘이
내린 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여서 중국의 성인천자와는 다르다. 왕권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찾은 것은 신라 뿐 아니라 흉노나 선비, 돌궐, 거란, 고
구려 등에서도 볼 수 있다. 李成珪, 1993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의 王
權』, 한울아카데미 ; 김호동, 1993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군주권」 『東亞史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 나희라, 2005 「고대 동북아 제민족의 신화, 의례, 군주관」 『진단학보』
99 참조.
- 2) Henri Frankfort and H. A. Frankfort, 1946 *The Intellectual Adventure of An-
cient Ma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이성기 옮김, 1996 「고대
인간의 지적 모험」, 대원사, p.175.

신인 환인이다. 환인은 인격적 존재이며 주권을 가진 父神으로 지고신의 속성을 가지고, 그 아들 환웅을 지상에 내려보내 단군을 탄생시켜 고조선을 건국하도록 하였다.³⁾ 고조선의 시조이며 지배자였던 단군은 그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최고신인 천신에게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고대 천신 관념의 특징의 하나로서, 이러한 천신 관념은 이후에 등장하는 주변의 여러 국가의 건국신화를 통해서도 파악된다.⁴⁾

고대 기록에서 천신은 비를 내리게 하고 자식을 주는 등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의 신격이다. 또한 도덕 질서의 궁극적인 수호자로서 선악을 판별하여 징벌을 하는 법과 질서와 규범의 집행자이기도 하다.⁵⁾ 신라인들은 이러한 지고 천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천신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건국신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보편적인 실체이며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하늘은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사회 통합에 적용되었는가를 고대 한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천군의 존재이다. 『삼국지』 동이전 韓條에는 한반도 남부

3) 서영대, 1991 「한국 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31~134.

4)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p.140~141.

5) 단군신화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에 질병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도덕률을 세웠으며 사회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든 문화 영웅이었다(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137). 신라에도 이러한 천신 관념이 분명하여 봉평비나 임신서기석에서 하늘에 맹서를 하고 이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죄를 얻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천신은 인간 사회의 도덕 규범을 관장하는 주체였다. 흥노, 돌궐 등 북방 유목족 등도 맹서를 할 때 하늘을 걸고 하며 그 약속을 어기면 하늘에 벌을 받는다는 관념이 강하였다. 何星亮, 1992 『中國自然神與自然崇拜』, 上海三聯書店, pp.59~65.

의 초기 철기시대 모습이 나타나있는데, 이에 의하면 소국의 중심읍인 국읍에 비록 主帥가 있어도 읍락들을 잘 제어할 수 없었다 하여, 당시 삼한 소국의 내부의 정치적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전하고 있다.⁶⁾ 그런데도 이들 소국은 대외적으로 단일한 정치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종교문화적 측면에서는 국읍에서 ‘主祭天神’ 하던 천군의 존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고신으로서의 천신 관념은 원시종교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⁷⁾ 한국에서도 청동기문화 단계의 암각화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태양을 숭배했던 흔적을 볼 수 있다.⁸⁾ 천신을 포함한 여러 신들을 숭배하던 당시 소국의 종교문화 속에서 국읍의 천군이 ‘주제천신’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기술한 것은 소국의 중심읍락인 국읍에서 지고신인 천신의 제사를 주도함으로써, 국읍 주수의 미약한 정치력으로 소국 전체의 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했을 때, 천군에게 부여된 천신에 대한 제사권이 소국을 하나의 정치단위체로 통합시킬 수 있었던 주요한 권위의 근거가 되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⁹⁾ 사료국 초기 단계에도 이러한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¹⁰⁾ 지고천신에 대한 신앙과 의례가 사회 통합에 역할을 했었던

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7) Mircea Eliade, 1983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Payot : Paris ; 이재실 옮김, 1993 『종교사 개론』, 까치, 제2장 하늘 : 하늘의 신들, 하늘의 제의와 상징. 宮田元, 1973 「至上神」 『宗教學辭典』(小口偉一·堀一郎 監修,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8)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31.

9)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p.108.

10) 여기서 천군과 주수의 관계가 신라 초기 단계의 상황과 어떻게 조응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흔히 소국시대는 제정분리시대였다고 한다(이현혜, 1984 『삼한사회 형성과정 연구』, 일조각, pp.125~129).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 남부의 모든 소국에 일률적으로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각 소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것의 달랐을 가능성도 생각해야할 것이다. 각 소국마다 사회분화에 따른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정도에 따라 천군에게 주수의 정치권이 합쳐지면서 보다 강화된 신성왕권에 입각한 권력화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주수

것은 고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국신화에 의하면 혁거세를 왕위에 추대하여 나라의 시조가 되도록 한 6촌장들 역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이들 집단이 각기 독립된 사회단위였을 때부터 이러한 천강신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신라의 국가 형성에 자신들의 신화를 그대로 가지고 참여하여 이들의 시조신화가 신라 건국신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¹¹⁾ 6촌장이나 혁거세나 모두 시조인데, 이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것은 신라인들이 집단을 통합하여 지배할 수 있는 권위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건국신화에 의하면 6촌장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산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혁거세 역시 하늘에서 양산 밑 나정으로 내려왔으므로 산을 통해 내려온 것이라 하겠다. 신라인들이 하늘만큼이나 높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신앙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산악이다.¹²⁾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우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사람들의 외경심을 불러일으켜 일찍부터 보편적 신앙 대상이었다. 산은 천상, 지상, 지하를 연결하는 우주축임과 동시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것을 낳는 어머니였다.¹³⁾ 고대 한국에서 산은 비를 내려 지상을 풍요롭게 해주고 지역의 수호를 담당하며

의 정치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그가 종교권마저 독점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을 수도 있다. 또는 종교적 권위에 따른 천군과 같은 존재가 국가의 대표자로 남고, 그의 미약한 정치력을 보좌하기 위해 주수와 같은 정치적 지배자가 어느 단계까지 계속해서 존재했을 수도 있다. 신라의 경우 초기 단계에 보이는 신성한 왕권의 개념, 무적 사제왕으로서의 성격 등은 신라에서 정치력의 성장이 종교권에 상당히 의지하면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252.

12) “其風俗刑法衣服，與高麗百濟略同，而朝服尙白。好祭山神。其食器用柳栝，亦以銅及瓦。國人多金朴兩姓，異姓不爲婚。”(『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 東夷 新羅)

13) Mircea Eliade 지음 이재실 옮김, 1993 앞의 책, 제10장 신성한 공간 : 사원, 궁전, “세계의 중심” 참조. 宮家準, 1989 『宗教民俗學』, 東京:東京大學出版會; 김용의 등 옮김, 2013 『종교민속학』, 민속원, pp.481~484.

죽은 자가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였다.¹⁴⁾ 신성한 산을 인격화한 산신은 그래서 여성인 경우가 많았고,¹⁵⁾ 천신이 산으로 내려와 산신이 되고¹⁶⁾ 위대한 자는 죽어서 산으로 돌아가 산신이 되기도 하였다.¹⁷⁾

그런데 천신과 산신 관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늘은 높고 무한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을 덮으며, 그 아래에서 마치 그가 시킨 듯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보편성, 무한성, 초월성, 영원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산악은 하늘 아래 지상의 이곳저곳에 있으며 인간이 다가갈 수 있어서 자신 주변에 있는 것으로 느낀다. 천신 관념이 산신의 그것에 비해 보편적이며 추상적이라면 산신관념은 상대적으로 개별적이며 구체적이다. 이러한 천신과 산신에 대한 종교 관념상의 차이는 그 형상화의 의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천신은 天, 天神, 上帝, 天帝, 上皇 등으로 명명되었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 기록에서 천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나 번개 등으로 그 의지를 실현시키는 존재로 나온다.¹⁸⁾ 이에 비해 산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곰과 호랑이와 같은 동물의 모습이기도 하고¹⁹⁾ 여성, 남성 등 인간의 형상으로 상상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눈

14) 이은봉, 1984 『韓國古代宗教思想』, 集文堂, pp.99~113.

15) 신라에서는 운제산성모, 선도산성모, 치술신모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孫晉泰, 1948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乙酉文化社.

16) 신라에서 비슬산 산신은 靜聖天王, 영취산 산신이 辯才天女로 불렀음은 이를 말해 준다.

17) 단군이 그랬던 것처럼 탈해도 사후 東岳神이 되었다.

18)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天賜玉帶; 『三國遺事』 卷第2, 紀異第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三國遺事』 卷 第2, 紀異 第2 眞聖女大王 居陞知.

19) 일찍부터 호랑이가 산신으로 숭배되었음은 동예의 기록에 등장한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濊).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인 虎景은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평나산의 산신과 부부였다(『高麗史』 高麗世系). 한국 산신도에서 노인의 모습을 한 산신의 옆에는 항상 호랑이가 있는데, 애초 호랑이였던 산신이 인격화하

앞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의지를 전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였다.²⁰⁾ 그리고 그 형상은 그림으로 혹은 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²¹⁾

그래서 산신은 일정 지역의 수호자로서 지역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격이었다.²²⁾ 동예의 산신인 虎神은 읍락들이 산과 강을 자연적 경계로 해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읍락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읍락적 질서

여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호랑이는 使者 혹은 乘物로 된 것 같다. 그 외 호랑이를 산신으로 여겼던 민간전승들도 많이 있다. 곰을 산신이면서 조상으로 여기는 전승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으며 신라의 경우 김대성이 토함산에서 죽었다는 곰은 토함산 신이었을 것이며(『三國遺事』 卷 第5, 孝善 第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기장산의 산신도 곰이었으며(『三國遺事』 卷 第5, 神呪第6 惠通降龍), 신라의 제사처 熊殺谷은 熊祭의 관습과 관련이 있는 곳일 것이다(『三國史記』 卷 第32, 雜誌 第1 祭祀 新羅). 이 은봉, 1984 앞의 책, pp.129~137 ;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제2장 읍락사회단계의 호신 숭배 참조. David A. Mason, 1999 *Spirit of the Mountains*, Holly Corporation ; 신동욱 옮김, 2003 『산신 : 한국의 산신과 산악 숭배의 전통』, 한림출판사, pp.35~36.

- 20) 신라 선도산의 산신인 선도성모는 ‘어여쁜 모양에 구슬로 탄 머리를 장식하고’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냈으며(『三國遺事』 卷 第5, 感通第7 仙桃聖母隨喜佛事), 김유신의 목숨을 구하여 나라를 지킨 삼산의 여신들 역시 예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金庾信), 토함산신 탈해는 위엄있고 용맹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고(『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第四脫解王), 中岳神은 시종을 데리고 나타나기도 하였다(『三國遺事』 卷第4, 義解第5 心地繼祖).
- 21) 선도성모가 안흥사 불전 벽에 ‘부처와 六類聖衆 및 여러 천신과 五岳神君을 벽화로 그리라는’ 명을 내린 것에서 천신과 오악신군이 벽화로 그려졌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三國遺事』 卷5, 感通 第7 仙桃聖母隨喜佛事). 여기서 천신은 불교의 천신이었을 것이다. 東岳神으로 좌정한 탈해는 자신의 뼈를 뺏아서 만든 像으로 표상되었다(『三國遺事』 卷 第1, 紀異 第1 第四脫解王).
- 22) 李基白, 1972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재수록 ; 文暻鉉, 1991 「新羅人의 山岳 崇拜와 山神」 『신라문화학회학발표논문집』 12, 新羅文化宣揚會.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 박호원, 1997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채미하, 2011 「신라의 6처과 山嶽祭祀」 『新羅史學報』 23 등 참조.

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 읍락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등 읍락의 독자성과 폐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졌다. 이렇듯 산신 숭배는 읍락 중심의 사회 질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²³⁾ 신라를 구성한 여러 집단들이 그 시조가 하늘에서 산을 통해 내려왔다 하고 또 집단명을 산으로 구분했던 것은 신라의 산신 숭배 역시 이러한 면이 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촌의 명칭에 모두 산이 들어가고 또 함께 결합한 명칭 중에 古墟, 大樹, 關川 등이 모두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²⁴⁾ 신라 초기 각 지역집단은 신성한 산과 그와 관련한 의례처를 결합시켜 각자를 변별하는 명칭으로 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산악신앙과 그 제사는 지역집단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지역집단은 곧 제사집단이기도 했던 것 같다.²⁵⁾ 외부인들에게 ‘즐거 산신을 제사한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²⁶⁾ 신라에서 산악숭배와 제사는 중요한 것이었다. 산악숭배와 제사는 지역집단과 밀접히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균현제 정비와 연관하여 율령제적 지배체제 정비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²⁷⁾

산을 표상으로 한 개별 집단들이 모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를 인정하고 왕위에 추대하였다는 것은 하늘은 개별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至上神이라

23)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p.67~91.

24) 高墟를 쓴은 터로 본다면 소도와 같은 말이고 이는 종교의례를 행하는 신성한 공간이 될 것이다. 大樹는 단군신화의 神壇樹와 같은 宇宙樹로서의 신의 강림처, 알천도 성지에서 행하는 의례적 행사로 보이는 열병이 자주 열린 장소였다. 三品彰英, 1975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pp.508~509; 洪淳稔, 1991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4, p.52;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p.266~268; 채미하, 2011 앞의 논문, p.93.

25) 浜田耕策, 1984 『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响沫集』 4, p.160.

26) 주 12) 참조.

27) 浜田耕策, 1984 앞의 논문, p.157.

고 생각했던 신라인의 신관념을 말해준다. 혁거세도 6촌장들과 마찬가지로 산을 통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고 6촌장들도 혁거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6촌장들이 각기의 산을 대표하는 것과 달리 혁거세는 지상의 개별 구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6촌을 모두 모아 하나의 나라를 세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다. 6촌장들은 지역적 특색이 분명한 지역집단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들 집단 모두를 통합한 것은 혁거세이고 이가 신라의 건국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천신은 시조왕의 아버지로서 여러 정치세력을 통합하여 국가를 지배해야 할 신라 왕권의 보증자가 되었다. 천신의 보편적 지고성은 사회분화가 진전되고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단계에서 중요한 종교관념으로 작동을 하였다.²⁸⁾ 청동기시대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서 천신관념은 정치권력의 집중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다.²⁹⁾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는 왕실은 자신들이 ‘天子’인 시조왕의 권위를 물려받았음을 강조하였다. 건국신화가 구성되고 기억되었으며 신화의 내용이 의례로 재현되었다. 신라에서 건국시조를 제사했던 시조묘제사나 신궁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시조왕의 이야기를 행위로 연출한 국가적 차원의 공공의례였고,³⁰⁾ 여기서 신라인들은 시조를 통해 구현된 천신의 힘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나라의 풍요를 기원하고 보호를 구했다. 종교적인 의례는 ‘상기’ 과정의 주요한 도구였다. 종교의식은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실재 규정과 이것의 적절한 정당화체계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였다.³¹⁾

28) 何星亮, 1992 앞의 책, p. 52 ; 姜英卿, 1996 「新羅 天神信仰의 機能과 意義」 『淑明韓國史論』 2, p. 34.

29) 최광식, 1999 「한국 고대의 천신관」 『사학연구』 58·59, pp. 68~69.

30) 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 참조.

31) Peter L. Berger, 1973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Penguin Books ;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pp. 47~48.

신라 왕실은 자신들이 지고천신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권위를 받아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였다.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집단이 번갈아가며, 또는 차례대로 왕실을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신라의 지배층이 신성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 수식에 연결시켰던 것은 하늘이나 산악 외에도 나무, 수풀, 알, 우물, 바다 등 다양하였다. 김씨 집단의 시조 알지는 닭에 의해 숲 속에서 발견됨으로써 나라 이름이 계림으로 알려지게 하였는데, 그 역시 하늘이 내린 금궤에서 나왔음을 강조하였다.³²⁾ 석씨 집단의 시조인 탈해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바다를 통해 들어온 탈해를 발견하고 기른 노파는 그가 신성한가 아닌가를 하늘에 묻고 답을 얻고 나서 그를 거두었다.³³⁾ 또 진평왕이 천신으로부터 왕권의 상징인 옥대를 얻었다는 것은³⁴⁾ 왕의 정치 행위가 지고천신의 보증을 받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³⁵⁾

그런데 이러한 왕실과 천신의 관계는 신라 하대로 가면서 달라지는 것 같다. 진성여왕 때 왕과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왕거인이 옥에 갇혔다가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이 벼락을 쳐서 그를 옥에서 나오도록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

32)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1 金闕智脫解王代.

33)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1 第四脫解王.

34)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1 天賜玉帶.

35) 진평왕이 옥대를 천신으로부터 받은 것과 달리 신무왕 때는 바다의 용왕으로부터 옥대를 얻고 만파식적을 받았다고 하였다(『三國遺事』卷第2, 紀異第2 萬波息笛). 혁거세가 죽어서 하늘로 돌아갔다고 한 이래 신라왕들은 하늘을 타게로 삼았던데 반해, 문무왕은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하였다(『三國遺事』卷第2, 紀異第2 文武王法敏). 이러한 이야기는 삼국 통일 직후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지배체제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그 권위 보증의 원천을 하늘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끌어오려는 시도에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왕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던 당시, 기왕의 하늘과 산악 숭배 뿐 아니라 탈해 도래 이야기에서 그 전통을 볼 수 있는 해양타계관도 적극적으로 끌어와 왕권을 수식하는데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

다.³⁶⁾ 여기서 하늘은 더 이상 왕실의 절대적 지지자가 아니다. 오히려 왕의 실정을 비판한 지식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늘은 왕권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거두고 보편적 정의의 지지자로 돌아선 것이다. 왕실의 보호자이며 왕권의 보증자로서의 천신의 역할이 흔들리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시작한 것 같다. 천신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들을 고집한 경덕왕 때문에 하늘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³⁷⁾ 왕실이 유지되도록 보호하던 천신이 이후 그 역할을 그만두었고, 이는 왕실이 더 이상 천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도 신라 하대 왕실의 권위가 유지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원성왕은 진골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 계승 다툼에서 北川神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즉위하였다고 하는데,³⁸⁾ 이 이야기는 중대 왕실 구성원이 아닌 중앙 진골귀족으로서 왕위에 오른 원성왕이 자신의 등장을 경주 지역의 구체적인 신과 연관시켜 참신함을 내세우고자 한 것이 아닌

36) 『三國遺事』卷第2, 紀異第2 眞聖女大王 居隨知.

37) 원래 지상의 인간과 하늘의 신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건 혹은 인간의 실수 때문에 단절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Mircea Eliade, 1974 *Shamanism—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이윤기 옮김, 1992 『샤머니즘』, 까치, p.16, p.135. 신과 인간이 교통하던 원초의 황금시대를 설정함으로써 현재 세계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이야기이다. 중국에도 『尙書』, 『呂刑』, 『國語』, 『楚語』 등에 ‘하늘과 땅의 교통이 끊어지다’는 고사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중국 고대종교사상 큰 사건으로 무질서한 제사를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제천의례는 왕권의 영역으로만 닫아두는 직분에 따른 제사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王治心, 지음 전명용 옮김, 1988 『중국종교사상사』, 이론과 실천, pp.45~48 ; 박미라, 1997 「중국 제천의례 연구—고사의례에 나타난 상제와 천의 이중적 천신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4). 신라 경덕왕의 이 이야기는 중국의 ‘絕地天通’ 전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을 터인데, 중국 고사의 원래의 의미와는 달리 하늘이 왕실의 자손을 내려준다는 전통적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말한 것으로 본다.

38) 『三國遺事』卷第2, 紀異第2 元聖女大王.

가 해석할 수 있다.

III. 권력의 집중, 신관념과 제사의 편제

이상에서 보자면 신라에서 천신 관념은 여러 지역집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와 왕권을 수호하고 보증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고 하겠다. 신관념이 정치이념으로 작용하게 되는 과정에는 신화의 구성과 그를 행위화한 의례의 거행이 역할을 했다. 신라에서 시조왕의 誕降과 건국을 이야기한 신화와 신화의 내용을 의례로 표현한 시조왕에 대한 제사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시조왕에 대한 제사는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모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씨족공동체사회 이래의 공공의례의 형태를 계승한 모습으로 거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규모가 크고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 모든 성원이 참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각각의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참가에 의해 공동체 내의 모든 성원이 참가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거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집단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왕실의 주도로 시조왕에 대한 제사가 거행되는 과정은 곧 신라를 구성한 여러 집단이 천신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은 시조왕과 그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왕실을 인정하고 그에 복속한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⁹⁾ 이러한 시조왕 제사의 정치적 기능은 이것이 신앙의 즉위의례로 거행되었던 것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신라에서 통합과 지배의 정신이 시조왕 신화와 그 의례를 통해서만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더 복잡한 종교적 체계가 필요했다.

사로국은 계속해서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

39) 나희라, 2003 앞의 책, p.93.

로는 국가의 지배질서를 체계화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건국신화의 6촌장 신화에서 보듯이 신라를 구성하고 통합된 여러 집단들도 애초에 왕실과 유사한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의 전통을 가지고 이를 자신들의 시조와 연결시키면서 독자적 신화와 제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을 하나의 정치체 안에 통합하여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종교문화적으로도 통합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중앙집권화의 정신은 개별적인 것을 하나의 중심으로 묶는 보편성, 그리고 개별적인 것들을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통일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라에서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정신이 실현되었을 터인데, 신관념과 종교의례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위대한 것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관할한다는 지고천신에 대한 종교관념은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정당화하는 정치이념과 연결이 될 수 있었다.⁴⁰⁾ 천신의 보증을 받아 개별적인 것들을 통일할 수 있는 보편성의 힘을 확보한 왕권은 개별 집단의 수호신과 그 제사들을 통합하고 편제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것이기도 했다.

왕실을 중심으로 신관념과 제사를 편제하는 것은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신관념의 편제에서는 왕실의 수호신을 최고위의 신으로 위치시키고 그 밑의 여러 집단의 수호신들을 서열화하여 차등있게 편제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신라가 성립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고신으로 관념되던 천신을 국가의 시조왕과 연결시키고 이를 신화적으로 구성해내는 작업은 그 일환이었다.⁴¹⁾ 6촌장들 역시 하늘과 연결되었지만, 그들이 중국적으로는 개별적 지역 산악에

40) 何星亮, 1992 앞의 책, p.52.

41) 일본에서 여러 집단이 숭배하던 태양신이 천황씨만의 조상신으로 한정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菊地康明, 1971 『律令體制と神祇イデオロギー—唐の祠令との比較から—』 『歴史學研究』 378, p.58.

좌정하였다는 신화적 구성은 보편적 천신 아래 개별적 산신들을 편제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하더라도 지배자의 권위가 천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관념은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왕실은 또 다른 방식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왕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적 시조왕에 대한 제사에서 시조왕을 매개로 구현되는 천신의 성격을 보다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신관념을 확대·강화하는 작업이 그것이었다. 그 결과 시조의 탄강지에 새로이 신궁을 설치하고 시조묘 제사 대신에 최고의 국가제사로 삼았다.⁴²⁾

뿐만 아니라 왕실은 알려져 있는 여러 신성관념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흡수하여 왕권을 수식하는 근거로 삼았다. 건국신화에서 6촌장들에게는 없는 卵生의 요소가 추가된 것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었다.⁴³⁾ 중대 왕실이 바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왕권을 보증하는 신성한 보물로 옥대와 만파식적을 얻었다고 주장한 것은 바다 저편으로부터 신이 와서 풍요를 준다는 전통적 해양타계관을 재해석하여 자신이 것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을 창출하거나 외부로부터 수용하여 왕권 보호와 보증의 근거로 삼는 시도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아멘호텝 4세가 기존의 아몬신 대신에 유일신인 태양신 아톤의 숭배를 선언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국가의례를 조직하고 기존의 사제와 귀족 권력을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유명하다.⁴⁴⁾ 파키스탄의 혼자 지구에 군주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족장이 기존의 종교 전통을 외면하고 새로운 종교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예도 이에 해당하겠다.⁴⁵⁾ 신라의 경우는 귀족집단과 천신 관념을

42) 나희라, 2003 앞의 책, pp.159~165.

43)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p.187~188.

44) 이러한 노력은 Amenhotep 4세의 죽음으로 개혁적 종교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고 후계자인 Tutankhamon은 전통적인 Amon-Re의 숭배를 복구시켰다. Ninian Smart, 1984 *The Religions Experience of Mankind*,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p.242.

공유하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불교 수용을 단행한⁴⁶⁾ 중고기 왕실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신관념의 편제는 제사의 편제와 직결된다. 중앙집권화를 진전시키던 왕실은 어떻게 여러집단의 제사를 편제하려는 노력을 했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시조에 대한 제사를 장악하고⁴⁷⁾ 그 제사를 가장 중요한 국가제사로 위치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⁴⁸⁾

그리고는 기존의 여러 세력의 독립적 제사권을 부분적으로 몰수하거나 통합하여 이를 국가 제사로 편제하려는 노력들을 해나갔던 것 같다. 국가제사를 제사 대상신, 제사 주관자, 제사 시기, 봉헌물, 그리고 제사 참여 집단과 같은 제사 거행의 요소들에 대한 간섭과 규정화라고 본다면,⁴⁹⁾ 중앙의 지배집단이 복속집단의 신관념과 제사를 흡수·통합하여 국가제사로 편제하는 방식은 다양했을 것이다.

지배 집단이 하위 집단의 신을 제사하여 하위 집단의 수호신의 신성한 힘을 흡수하였음을 보여주어 정치적 지배질서를 확인시키는 방식이 있었다.⁵⁰⁾

45) Kent Flannery & AJoyce Marcus, 2012 *The Creation of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하윤숙 옮김, 2015 『불평등의 창조』, 미지북스, p.577.

46) 서영대, 1991 앞의 논문, pp.253~255.

47) 남해차차웅이 그 누이인 아로에게 시조묘의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는 기록은 왕이 최고의 제사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실 구성원에게 그것을 분장시킴으로써 왕실이 국가의 최고 제사권을 독점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三品彰英, 1975 앞의 책, pp.217~220.

48) 신라의 국가제사와 그 편제에 대한 연구에서 시조왕에 대한 제사가 최고의 제사였음은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 최광식, 1994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49) 나희라, 2003 앞의 책, p.15.

50) 殷과 日本의 경우 피정복족의 신을 정복집단에서 제사하여 피정복족의 수호신의 靈力を 정복족에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上田正昭, 1975 『古代の祭祀と儀禮』

일성니사금과 기림니사금이 태백산에 대해 직접 제사를 한 것은⁵¹⁾ 영주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산신에게 제사함으로써 그 신과 교통하는 자격을 확인받고 그럼으로써 그 신이 관장하고 있던 정치세력에 대한 우위의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하여 그곳 산악에 제사를 지냈던 것도 이와 같은 예이다.⁵²⁾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지방의 독자적 의례를 중앙의 제사 안으로 흡수·편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⁵³⁾ 영일현 지역 祭天 神物인 細綯를 중앙의 御庫로 옮겨 보관하는 것은 그 지역 수호신의 靈力이 중앙으로 옮겨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지역의 제사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적 차원의 제사로 흡수하여 편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岩波講座 日本歴史』1, 岩波書店, p.34; 伊藤道治, 1975 『中國古代王朝の研究』, 創文社, p.128.

- 51) “五年冬十月, 北巡, 親祀太白山.”(『三國史記』卷 第1, 新羅本紀 第1 逸聖尼師今) “三年三月, 至牛頭州 望祭太白山.”(『三國史記』卷 第2, 新羅本紀 第2 基臨尼師今)
- 52) “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之時記 ... □言□令甲兵之 仿□□□□□□霸主設□賞□□ ... 之所用高祀西□□□□...”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第2冊 新羅). 임평섭, 2014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 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行적에서의 祀」 『新羅文化』 43 참조.
- 53) 신중원, 1992 앞의 책, pp.73~74; 채미하, 2008 앞의 책, p.70.
- 54) 제사와 관련한 神寶를 획득하거나 바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정복과 복속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은 여러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日本書紀』天孫降臨條 본문에 神寶 奉獻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 정복자가 복속집단의 神寶를 봉헌받았던 것은 정복자가 그것을 소지하고 奉齋함으로써 신보가 가진 복속지 수호신의 靈力을 받아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泉谷康夫, 1970 『服屬傳承の研究』 『日本書紀研究』 4, 塙書房, pp.128~132). 고대 한국에서도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비류왕 송양과 나라를 두고 겨루다가 비류국의 신물 鼓角을 가져오자 결국은 송양이 항복했다는 이야기(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와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의 三寶를 보고자 했던 이야기(『三國史記』卷 第12, 新羅本紀 第12 景明王 5年 春正月條)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또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신을 다른 집단에게 제사하도록 강요하는 방식도 있는데,⁵⁵⁾ 신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취해졌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단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제사에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던 것은 신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국신화에서 6촌장들은 자제들을 이끌고 모두 모여 하늘에서 내려온 시조왕을 맞이하였다. 이는 시조왕에 대한 제사에 신라를 구성한 여러 집단들이 모두 참석하였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지배집단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 신의 힘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탁발선비의 제천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휘하 대인이 처형된 것은 이러한 의미였다.⁵⁶⁾ 중국에서도 천자의 제사에 제후들이 ‘助祭’를 하도록 한 것은 제후와 천자 사이의 군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⁵⁷⁾

또 기존의 전통적인 제사의 형식이나 내용과 많이 다른 제사를 창출하거나 수용하는 것도 지배집단이 제사를 통해 하위집단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불교의 수용은 신관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55) 遼東城의 朱蒙祠 같은 경우는 이를 부여족의 동명 신앙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 중앙의 주몽에 대한 제사가 지방에까지 확산·강요되었던 것으로 본다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條). 중국의 경우 한의 高祖, 太宗(文帝), 世宗(武帝)이 생전에 行幸한 郡國에 그들의 廟를 설치하고 이를 郡의 太守와 諸侯王이 제사토록 함으로써 그 지역에 漢의 권위를 확립하고 逆亂을 鎮遏하고 民心을 歸一시키려 했었다(板野長八, 1972 「前漢末に於ける宗廟·郊祀の改革運動」 『中國古代いおけ人間觀の展開』, 岩波書店, p.547). 樂浪郡에 孝文廟가 설치되었고 天子의 제사를 관장하는 禮官이 있었으며 그 건물이 樂浪郡 治所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駒井和愛, 1943 「樂浪禮官瓦當考」 『史苑』 15-1).

56) “夏四月祭天, 諸部君長皆來助祭, 唯白部大人觀望不至, 於是徵而戮之, 遠近肅然, 莫不震懼.” (『魏書』 卷1, 序紀 第1 始祖神元皇帝 39年). 흉노의 龍祠에 불참하는 것도 叛意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제제가 가해졌다. 박원길, 1998 『북방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pp.20~37, p.116; 서영대,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p.21.

57) 나희라, 2003 앞의 책, pp.188~191.

전혀 이질적인 제사의 내용과 형식을 들여오는 것이었다. 불교가 엄격한 수행과 하나의 단일한 지도력에 근거하고 개별 집단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중앙집권화를 피하던 왕실이 불교를 적극 수용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⁵⁸⁾ 기존의 조상제사와는 다른 훨씬 복잡하고 세련된 중국의 종묘 제사를 들여와 왕실의 조상제사를 재편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서로 비슷하게 공유하던 제사의 형식과 내용을 현격하게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그리고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형식과 내용이 사람들에게 경이롭고 위압적인 감정을 주어 그것을 주도한 집단에 대해 존경과 복종의, 혹은 반발할 수 있었지만, 감정을 가지게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신관념과 제사 편제 노력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제사 체계로서 祀典의 성립으로 이어졌다.⁵⁹⁾ 이미 중앙집권화된 국가제사 체계를 경험한 중국의 예제를 수용하면서 신라는 시조왕에 대한 제사를 국가의 최고위 제사로 위치시키고 왕경과 지방의 산천제사를 대중소사로 편제하였다. 대중소사체계는 중국 예제에 입각한 국가제사의 편제 규정으로 여러 국가제사를 그 제사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지어서 체계화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중소사체계와 달리 신라는 전국의 산천제사만을 대상으로 대중소사로 등급을 지어 구분하였다. 산천제사는⁶⁰⁾ 제사를 매개로 한 지역집단의 세력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라가 특히 이들 제사를 대중소사로 체계화한 것은 왕을 정점으로 한 제사의 차등성이라는 원리를 깔고 있는 대중소사체계를 통해 왕실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집단의 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⁶¹⁾

58) 세르게이 토카레프 지음 한국종교연구회 옮김, 1991 『세계의 종교』, 사상사, p.323.

59) 신종원, 1992 앞의 책, pp.94~98.

60) 신라의 대중소사를 구성한 산천제사는 제사 대상의 명칭이나 위치로 볼 때 대부분이 산악제사이다.

61) 나희라, 2003 앞의 책, pp.44~46.

신라의 산악 제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었다. 三山五嶽의 편제가 그것이다.⁶²⁾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奈歷, 骨火, 穴禮가 삼산으로, 낭산, 토함산, 선도산, 함월산, 금강산 등이 오악으로 묶였다.⁶³⁾ 사로국의 여러 집단을 대표하거나 사로국에 통합되어 신라로 성장해나간 여러 집단의 상징을 묶은 것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별개의 이름을 가진 개별적 산악이었으나, ‘山’과 ‘嶽’이라는 보편적 개념 하에 통합되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독자성을 상실하고 몰개성화되어 ‘3’과 ‘5’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었다. 삼산에 관한 유명한 설화에서⁶⁴⁾ 나력, 골화, 혈례산의 여신들은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지역을 달리하여 모였어도 그들은 공통으로 김유신의 목숨을 구하여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산신의 역할을 해내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이전의 오악을 확대 개편하고 삼산과 오악을 포함한 국토의 대부분의 산천제사를 대중소사로 등급화하여 편제하였다. 보편적 개념 하에 다양한 것들을 분류하고 모으는 것은 그 다양한 것들의 독자적 개별성을 제거하고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삼산과 오악, 대중소사의 편제는 바로 이러한 정신의 구현이었다. 이렇게 편제된 체계의 가장 위에 위치했던 것은 왕실의 조상과 그를 통해 구현된 천신과 그 제사였다.⁶⁵⁾

62) 홍순창, 1991 앞의 논문 참조.

63) 李基白, 1972 「신라 五岳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 33 ; 主보돈, 2014 「신라 狼山의 歷史性」 『新羅文化』 44 참조.

64) 『三國遺事』 卷 第1, 紀異 第1 金庾信.

65)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찬자는 신라는 제천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지만, 실제로 신라인들은 시조왕에 대한 제사를 통해 제천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신종원, 1992 앞의 책, pp.71~84 ; 나희라, 2008 앞의 책, pp.227~229 참조.

IV. 맺음말

초기 신라사회에서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는 보편적인 종교문화였다. 신라를 구성한 여러 집단들이 자신들의 시조가 하늘에서 산을 통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들 집단의 정체성과 지배자의 권위의 기원과 근거를 하늘과 산에서 찾았던 것이다. 산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므로 고대 한국에서 천신은 산을 통해 하강하고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 신성함을 목격하거나 스스로 체험하였다. 그러나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하늘에 비해 산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이다. 신라인들에게도 천신은 지고하며 보편적이며 추상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산신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상상되었으나 천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산신은 일정한 지역의 수호자로서 지역집단과 연결되었다.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신라를 통합하고 지배해야 하는 왕권의 상징은 이러한 개별성을 뛰어넘는 천신에게서 구해졌다. 그래서 신라 왕실은 자신들이 천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야 했다. 신라에서 천신 관념은 여러 지역 집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와 왕권을 수호하고 보증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신관념은 건국신화를 구성하고 그것을 의례로 행위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이념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종교문화의 체계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관념과 제사들을 편제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지역의 수호신인 산신에게 왕이 직접 제사를 하거나 그러한 제사에서 사용하던 신성한 봉헌물을 중앙으로 옮겨오는 것은 왕이 지역 수호신의 힘을 흡수하고 지역의 제사권에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제사로 편제하는 것이었다. 지역집단의 독자성을 상징하는 개별적 산악들은 ‘산(山)’과 ‘악(嶽)’이라는 보편 개념으로 그룹지어지면서 편제되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그 개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통일 이후 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제사의 차등적 편제라는 원리를 깔고 있는 대중소사체계를 갖춘 사전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신라인들에게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는 중요한 종교문화의 요소이었다. 그것은 신라인들의 세계 인식과 삶의 원리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는 정치사회적으로도 지배와 복종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정치사회적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보편적 지고신으로서의 천신 개념은 산악 숭배를 통해 개별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여러 지역집단을 통합하고 지배할 근거를 제시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집단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왕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이 천신의 권능을 이어받았고 또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천신은 산을 통해 지상에 하강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신과 산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어서 보편적 천신 관념과 개별적 산신 관념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왕실은 정치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 때마다 새로운 종교 정책에 관한 여러 차례의 노력을 하였다.

투고일 : 2016.4.18

심사개시일 : 2016.5.18

심사완료일 : 2016.5.26

참고문헌

- 姜英卿, 1996 「新羅 天神信仰의 機能과 意義」 『淑明韓國史論』 2
- 김호동, 1993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군주권」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 나희라, 2005 「고대 동북아 제민족의 신화, 의례, 군주관」 『진단학보』 99
- 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
- 文暻鉉, 1991 「新羅人의 山岳 崇拜와 山神」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2, 新羅文化宣揚會
- 박미라, 1997 「중국 제천의례 연구 -고사의례에 나타난 상제와 천의 이중적 천신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원길, 1998 「북방민족의 사마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 박호원, 1997 「한국 공동체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대, 1991 「한국 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대,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 孫晉泰, 1948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乙酉文化社
-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 李基白, 1972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李成珪, 1993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 이은봉, 1984 「韓國古代宗教思想」, 集文堂
- 이현혜, 1984 「삼한사회 형성과정 연구」, 일조각
- 임평섭, 2014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행적에서의 祀」 『新羅文化』 43
- 주보돈, 2014 「신라 狼山의 歷史性」 『新羅文化』 44
-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 채미하, 2011 「신라의 6村과 山嶽祭祀」 『新羅史學報』 23
- 최광식, 1994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 최광식, 1999 「한국 고대의 천신관」 『사학연구』 58·59
- 洪淳稜, 1991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4
- 駒井和愛, 1943 「樂浪禮官瓦當考」 『史苑』 15-1

- 泉谷康夫, 1970 「服屬傳承の研究」『日本書紀研究』4, 塙書房
- 菊地康明, 1971 「律令體制と神祇イデオロギー—唐の祠令との比較から—」『歴史學研究』
378
- 板野長八, 1972 「前漢末に於ける宗廟・郊祀の改革運動」『中國古代いおけ人間觀の展開』,
岩波書店
- 宮田元, 1973 「至上神」『宗教學辭典』(小口偉一・堀一郎 監修), 東京大學出版會
- 上田正昭, 1975 「古代の祭祀と儀禮」『岩波講座 日本歴史』1, 岩波書店
- 伊藤道治, 1975 「中國古代王朝の研究」, 創文社
- 三品彰英, 1975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 浜田耕策, 1984 「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响沫集』4
- 宮家準, 1989 『宗教民俗學』, 東京:東京大學出版會; 김용의 등 옮김, 2013 『종교민속학』,
민속원
- 王治心 지음 전명용 옮김, 1988 『중국종교사상사』, 이론과 실천
- 何星亮, 1992 「中國自然神與自然崇拜」, 上海三聯書店
- 세르게이 토카레프 지음 한국종교연구회 옮김, 1991 『세계의 종교』, 사상사
- Henri Frankfort and H. A. Frankfort, 1946 *The Intellectual Adventure of Ancient 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성기 옮김, 1996
『고대 인간의 지적 모험』, 대원사
- Peter L. Berger, 1973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Penguin Books;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 Mircea Eliade, 1974 *Shamanism—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Uni-
versity Press; 이윤기 옮김, 1992 『샤머니즘』, 까치
- Mircea Eliade, 1983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Paris:Payot; 이재실 옮김, 1993
『종교사 개론』, 까치
- Ninian Smart, 1984 *The Religions Experience of Mankind*,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 David A. Mason, 1999 *Spirit of the Mountains*, Holly Corporation; 신동욱 옮김,
2003 『산신: 한국의 산신과 산악 숭배의 전통』, 한림출판사
- Kent Flannery & AJoyce Marcus, 2012 *The Creation of Inequality*, Harvard Uni-
versity Press; 하윤숙 옮김, 2015 『불평등의 창조』, 미지북스

Abstract

The belief on the sky god and mountain spirits in early Silla society
 –Social unific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uling system
 in relation to religious culture–

Na, Hee-La

Silla's people had special religious feelings of the sky and the mountain like most of ancient people. They considered that the sky, covering all of the ground, has the universal and real power to move human society and the mountain, rising to a great height, connect the earth to the sky. So various groups formed early Silla society explained that their founders came down from the mountains in the sky.

The sky is universal and abstract. In comparison, the mountain is individual and specific. Silla's people also thought that the sky god is great and universal and abstract. In early Silla society, mountain gods was connected to the regional group as guardians of the region. The royal family argued that they were connected to the sky god to unify and govern the kingdom consisted of several groups. As the centralization went along, major mountains surrounding the royal capital were arranged into three 'mountains(山)' and five 'large mountains(嶽)'. In doing so, mountain spirits who had symbolized the serpent of the regional groups were to stay in the role of a royal patron.

The belief on the sky god and the mountain worship was important element of religious culture in Silla's people, thereby acting as a political ideology for social integration and organization of governance system.

Key words : sky god, mountain spirits, state-founding myth, centralizing of government system, three 'mountains' and five 'large mountains'(三山五嶽)